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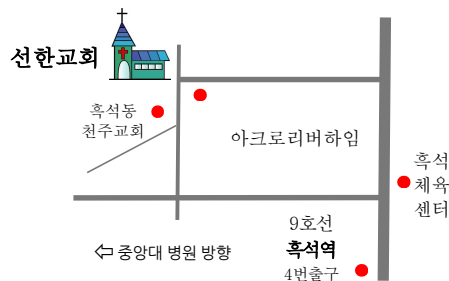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유 아 부	오전 10:00 남전도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0:00 바 울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김진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 외 협 력 선 교 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박 희 태, 유 신 웅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장 로	윤 호 중 (집사장)	관 리 장 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이금춘, 김인실
	조 계 승, 이 태 수		조나단, 강야엘
	편 도 선		손 석 규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10:12)
Break up your fallow ground

실 천 사 항 예배회복 말씀/기도회복 선교사의 삶 회복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살후 1:3~4)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임춘배 담임목사
	3부 오후 1:00 (청년예배)	김진만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23장 (통일찬송가 23장)	
교 독 문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찬 양 과 경 배	337장 (통일찬송가 363장)	
기 도	이 태 수 장로	임 은 형 청년
특 송	류 은 영 집사	
말 씬 봉 독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2절	마태복음 5장 4절
설 교	바울의 두 번째 편지 (임춘배 목사)	애 통하는 자 (김진만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정예영 회장
파 송 의 노 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축 도	임춘배 목사	주기도문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나의 기도예 귀를 기울이소서 (시17:1-15)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예 배 안 내
1.8월 첫주일(7일)부터 모든 예배와 부서별 모임을
코로나 이전처럼 드립니다.
2.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3.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침 례 식
8월7일 주일 11시 예배후. 침례받으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3. 개인경건훈련안내
이번 주 성경읽기 범위
(범위 : 야고보서1장 ~ 요한계시록 22장)
4.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추고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2.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3.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선한교회의 각 부서들의 부흥과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5.선한교회를 위해 예비된 분들이 모두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월 부서별 행사			
유아부	7/3~24 (주일, 4회)	교회	비교하지 않아요(파이디온)
유초등부	7/3~24 (주일, 4회)	교회	비교하지 않아요(파이디온)
청소년부	7/29~31 (금~주일)	외부(가평)	하나님을 알라 (신7:9)
요셉회	7/30 (토)	교회	정훈화 목사, 김대희 장로
드보라회	7/31(주일)	교회/외부	자체수련회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 풍성히 자라나는 한주간의 삶이 되도록
--------------	--

가정예배

이슬 같은 은혜

찬송 : ‘저 장미꽃 위에 이슬’ 442장(통 499)
본문 : 호세아 14장 5~8절

말씀 :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이슬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호 14:5) 이슬의 은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비는 어쩌다 한 번씩 오지만 이슬은 매일 아침마다 내립니다. 이슬 같은 은혜는 매일매일 내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매주일마다 드려야 합니다. 성경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기도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그다음에 소낙비는 요란하게 쏟아지지만,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립니다.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좀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요. 은혜를 받았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떠들썩하고 그렇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요. 조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표시가 안 나요. 대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니다. 하나님의 수목원에 온갖 초목이 자라는데 큰 나무에서 조그만 꽃까지 다 있어요. 백합화 같은 것은 별로 크지 않잖아요. 반면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쪽쪽 뻗은 나무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수목원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꽃도 있는데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 버립니다. 이슬의 은총을 받지 않고 크는 초목이 없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초목에 이슬을 내려 주실 때 백향목 같은 것은 특별한 나무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슬초 같은 것은 시시한 풀이니까 대충 아무거나 주시고 그랬나요. 백향목은 키도 쪽쪽 뻗고 향기도 좋고 그러니까 특별한 이슬을 먹었나요. 신선들이 마신다는 하늘의 감로수 같은 이슬을 내려 주셨나요. 시시한 풀들은 그냥 구정물 같은 것을 끼얹어 주고 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랬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초목에 똑같은 이슬을 내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백향목과 우슬초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포도나무와 백합화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나무가 다 똑같이 사랑스럽고, 다 똑같이 아름다워요. 나무에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한테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나 율법을 잘 모르는 무식한 백성들이나 똑같이 대했어요.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않았어요. 어린애들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고 높여 주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바울의 두 번째 편지 (살후1:1-12)	
서 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 론	1. 바울의 감사와 교훈 (1)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2,3개월 정도 경과한 후 두 번째 편지 보냄(AD51-52년경) (2) 기록목적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바른 재림 신앙을 갖게 하는 것 (3) 감사의 내용: ①믿음이 더욱 자람 ②서로 사랑함이 풍성함(3절) ③박해와 환난중 인내와 믿음(4절) (4) 환난의 이유와 목적: ①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5절) ②공의로운 심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7절)과 영광(10절), 환난을 받게하는 자들에게는 환난(6절)과 멸망의 형벌(9절) (5) 바울의 기도(11,12절)	
	2. 교훈 (1)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 풍성히 자라고 있는가? (2) 환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가? (3)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결 론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신앙이 풍성하게 자라가는 굳건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 배 기 도	이태수 장로	편도선 장로

매일 Q.T.		불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	날짜 : 7월 18일
찬양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본문	고린도후서6:14~7:1		
말씀요약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이 사귄 수 없듯,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기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세상과의 분리 6:14~18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단호히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특히 주의할 것인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자신을 깨끗하게 함 7:1 하나님 '약속'을 가진 우리는 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나요? 온갖 더러운 것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깨끗이 지킬 수 있나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7장 1절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이 시대는 쾌락, 권력, 황금 등 머지 않아 사라질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심지어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대상으로서 '신'의 지위를 차지하고 군림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조차 이 시대가 뿜어내는 화려한 빛을 좇다가 시력을 잃어 갑니다. 경건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내 사라질 일시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절제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불신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을 분별력을 갖추게 하소서.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찬양과 기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G) 나의 사랑 나의 생명 (G)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알프스의 몽블랑(Mont Blanc)이라는 산에 비가 내리고 빙하의 물이 녹으면 강물이 흘러 세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의 강줄기는 대서양으로 흘러가고, 하나는 지중해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흑해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이루는 산마루나 산맥을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분수령에 따라서 물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에서 비 롯해 '분수령'은 어떤 사건이 발전하는 전환점이 된 역사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이라는 분수령을 따라서 삶과 행동의 전환점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수령이 바로 삶의 가치관이 됩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방향의 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이 보기에 착한 행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은 누구나 양심에 따라 추구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분수령, 즉 그 방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지금의 만족과 유익과 욕구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경주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말씀 나누기	고린도후서 6:14~7:1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불의의 세계에서 의인을 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 가운데서 빛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요, 우상의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동행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고, 그분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것들을 대비해 설명했나요?(14~16절)	
적용하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내가 분리해야 할 것, 도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기도		

매일 Q.T.		선한 일에도 조심하는 신중한 사역자	날짜 : 7월 22일
찬양	찬송가 595장 나 말은 본분은		
본문	고린도후서 8:16~24		
말씀요약	바울은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형제 두명을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는 거액의 연보와 관련해 비방받지 않고, 주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입니다. 바울은 동역자인 디도, 그리스도의 영광인 형제들에게 사랑을 보이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목상질문 1	재정은 말은 사람들 8:16~21 바울이 연보 모금과 운반을 다른 이들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위임함으로써 공정하게 처리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오해의 소지를 차단함 8:22~24 바울이 연보를 맡긴 이들은 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일꾼들이었나요? 오해와 실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가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8장 20~21절 현명한 사람에게는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늘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방만한 처리 방식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의도를 의심받거나 냉혹한 비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의 실수를 맹렬히 비난 합니다. 따라서 선한 목적이 성취되려면 방법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구제와 섬김에 수반되는 물질을 다룰 때는 시작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이들에게 같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같은 간절함을 주소서. 특히 사역을 위해 재정을 모으고 사용할 때 의심받을 만한 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게 하소서. 선한 일을 선한 의도와 선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소서.		

매일 Q.T.		진실한 사역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	날짜 : 7월 19일
찬양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본문	고린도후서 7:2~7		
말씀요약	바울은 자신의 진실함을 변론하며 자신을 영접하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바울은 그들 때문에 환난 중에도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케도니아에서 환난을 당해 두려워하던 바울 일행에게 디도를 보내 고린도 성도들의 위로와 소식을 전해 받게 하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목상질문 1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 7:2~4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진실함을 어떻게 변론했나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요?		
목상질문 2	사역자가 받는 위로 7:5~7 안팎으로 환난 가운데 있던 바울은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았나요? 나는 복음 사역자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나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7장 2,6절 사탄이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법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오해와 갈등을 일으켜 화목을 깨트린 후 서로를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성과 도덕성을 불신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권위에 치명상을 입은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고, 디도의 수고로 인해 바울에 대한 불신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사탄의 전술이 오해와 편견이라면, 성령의 해법은 이해와 관용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선순환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자와 성도, 믿음의 형제자매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한 이들이,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지체들을 보듬고 일으키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소서.		

매일 Q.T.		회개로 이끈 근심, 신뢰 회복의 기쁨	날짜 : 7월 20일
찬양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본문	고린도후서 7:8~16		
말씀요약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잠시 근심했으나, 불의를 벌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나타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룹니다. 바울은 디도의 보고를 듣고, 모든 일에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7:8~12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 후회했다가 다시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마음에 근심함으로써 회개하게 된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바울이 더욱 위로받은 이유 7:13~16 디도를 만난 일과 더불어 바울이 더욱 기뻐하게 된 일은 무엇인가요? 사역 현장에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7장 10~11절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금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영혼을 성찰하게 하시려는 성령의 치밀한 의도에 비롯된 근심입니다. 전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근심이라면, 후자는 영적 소생을 이루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영적 자각을 위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시16:7)하도록 이끄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른 근심은 선한 반전을 가져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공동체 안의 문제에 제가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없는지 근심하며 돌아봅니다. 회개를 통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 원하오니, 저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소서. 바른길로 이끄는 권면을 달게 받게 하시고, 서로 간의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 신뢰가 회복되게 하소서.		

매일 Q.T.		부족함을 보충하고 균등하게 하는 연보	날짜 : 7월 21일
찬양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본문	고린도후서 8:1~15		
말씀요약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시련과 가난에도 연보를 넘치게 했습니다. 바울은 연보를 먼저 시작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함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합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가난하게 되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해 균등해집니다.		
묵상질문 1	자원하는 연보 8:1~9 연보에 관해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어떤 면을 칭찬했나요? 어렵고 힘들 때도 나는 나보다 힘든 사람을 기억하고 구제 헌금을 드리나요?		
묵상질문 2	연보의 목적 8:10~15 넉넉한 성도가 부족한 성도를 채워 주는 일이 왜 중요한가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보충해 주고픈 지체는 누구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8장 13절 사랑은 타인에게 곁은 내주는 ‘배려’에서 시작하고, 곁으로 초대한 이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행위가 ‘너그러움’이라면, 가장 잔인한 행위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거인으로 거듭난 시점은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기로 결심한 때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행위는 더 큰 풍요를 함께 누리는 사랑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공동체를 균등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로 지체들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제 안에서 있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게 하소서.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저를 부요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곤고한 이들을 돌아보아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